

“4대강 개발은 무모” 부경종교평화연대

부산경남지역 종교지도자 모임인 부산경남종교평화연대(공동대표 도관 스님, 방영식 목사, 박창균 신부)는 2월 2일 부산 광장호텔에서 현 시국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산경남종교평화연대는 성명서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와 남북 현안 논의 및 개선 △무모한 4대강 개발 중단 △세종시 사업의 원안 실현 및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현 △현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무차별 감사와 언론 감시, 통제 중단 △검찰 인사제도 개혁 △무소불위 권한인 감정을 시행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경철의 스님에 대한 집단 폭행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경찰청장 공개사과 등을 촉구했다.

박지원 기자

어르신들 위한 설 연휴 영화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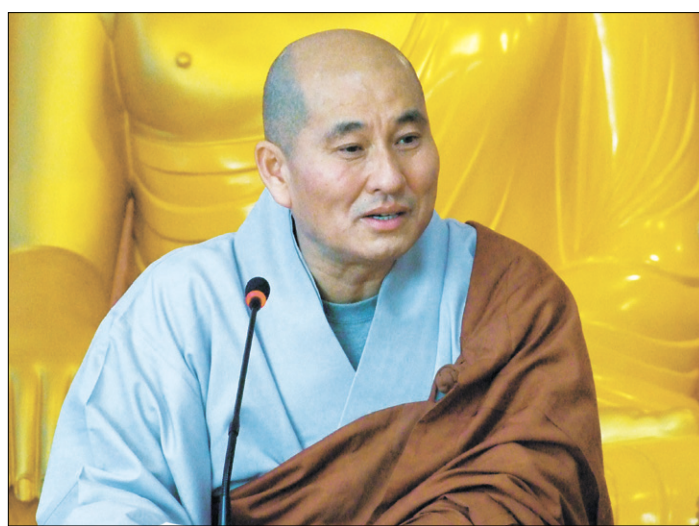
마산 금강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인철)은 설 연휴를 앞둔 2월 8-11일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인기영화를 상영한다. 영화는 8일 ‘달마야 서울가자’, 9일 ‘태극기 휘날리며’, 10일 ‘청담보살’, 11일 ‘꽃피는 봄이 오면’의 순으로 복지관 내 별관 강당에서 해당일 오후 1시부터 상영한다.

박인철 관장은 “이번에 상영할 영화는 웃음을 줄 수 있는 유쾌한 장르와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의 만큼 공감할 만한 시대극 등을 선정했다”며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달래드리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055) 221-8445

박지원 기자

부처의 마음 깨닫는 것이 ‘선’

월암 스님의 ‘행복선禪수행학교’ 2기 모집



행복선禪수행학교 교장 월암 스님은 “선은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간장 · 된장 맛이 짝지 싱거운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참선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만큼 선은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참선은 어려운 경지라서 아무나 할 수 없다는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해 부산 도심의 미타선원(주지 하림)에 문을 연 ‘행복선禪수행학교’(교장 월암, 문경 석학사 용성선원장)가 2010학년도 제2기 입학생을 모집한다.

교장인 월암 스님은 “선종은 과거 중국사회에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본래부처’라는 쉬운 가르침을 통해 대중화됐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불교이론을 마스터하고 고수들이 참선을 한다고 잘못된 생각이 일반화돼 일반불자들은 참선이 너무 어려워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 이를 수 없다고 좌절해버리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스님의 원력이 오롯이 담긴 행복선禪수행학교는 참선을 하면 행복해진다는 진실과 함께 행복을 모토로 한 수행, 그것이 곧 참선이고 간화선임을 가르치고 있다.

스님은 학교의 설립취지에서 “마음이 부처요, 사람이 부처다. 부처의 행을 수행하고 부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선이다. 선에 대해 올바른 이론(정견)을 정립하고, 실습수행을 통해 완전한 행복에 이르며(상구보리), 자비의 실천으로 대승보살의 삶을 살아가는(하화중생) 행복선수행자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교 2년차를 맞은 행복선수행학교는 지난 1년의 시행착오를 분석해 2년 과정을 1년 과정으로 대폭 축소했다. 수학기간을 줄여 학생들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대신, 2년 전문지

도사과정을 신설해 선택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과정은 변경됐지만 생활 그대로가 선이 되어야지 참선과 삶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이념은 변함없다.

“삶 자체가 선으로 꽃 피워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실의 삶을 떠나서 진리만 쫓고, 선을 어렵게 생각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세태가 안타까운데, 본래 선의 모습으로 돌리자는 것이 학교의

목표이고 취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작된 선수행의 불씨가 전국 선불교와 불교 중흥의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는 3월 12일 개강을 앞둔 행복선수행학교 2기 참선전문교육과정은 1년 2학기제로 참선입문에서 심화과정에 이르는 이론과 실참을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와 오후 7시 30분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은 “이론과 참선수행을 조화롭게 겸비해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대승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선수행자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강에 앞서 2월 21일, 2월 28일, 3월 7일 3일간 오전 10시 30분에는 ‘선 수행의 대중화와 선종 진학을 위한 선지식 초정 행복선 참선안심법회’를 개최한다. 오후로 네 번째를 맞은 이번 법회에는 월암 스님을 비롯해 설우 스님(창주 법인정사 선원장), 혜국 스님(중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등 한국선 진학을 위해 용맹정진해 온 덕망 높은 선지식들이 차례로 법석에 올라 감포법문을 펼칠 예정이다. (051)253-8686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아이들 퇴소할 땐 예뻐미소 되찾아

불국토를 찾아서 (재)범어청소년동네 영희네 집

재단법인 범어청소년동네 이사장 정영희네 집소장 도관·범어사 총무 국장에는 9-24세의 가출한 여자청소년 1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단순 가출보다 가정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탓에 부득이 가정으

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한국에서는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법으로 일시·단기·중장기 등 단계별 보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영희네 집은 1년간 머무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1회 연장이 가능한 기관으로 최대 2년간 가출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영희네 집 소장 도관 스님.

윤희선 국장(지도교사)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만큼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학력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출 기간이 길어져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정고시 공부를 중점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정한 학력을 취득한 후에는 스스로 선택한 진로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자금에 자족해 대학에 진학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생활기술 등을 가르친다. 어려서부터 가정과 부모에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용돈을 관리하는 방법부터 요리, 설거지, 양치질, 개인위생 관리 등 엄마가 딸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지도교사들로부터 배운다.

윤 국장은 “처음에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는 꼬리가 올라가 무언가 잔뜩 화가 나었는데, 1-2년 후 퇴소할 땐 정말 예뻐미소를 되찾아 밝고 예뻐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밑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지도

과 사랑 또한 차가워 얼얼했던 이들의 마음을 녹이는 데 큰 힘이 된다. 오랜 가출생활에 건강이 열려버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한약을 지어주는 가하면, 매일 쌀 60kg를 지원해 주고, 명절이면 세 배돈과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기도 한다. 공부방 한 칸에는 현직 교사들이 후원해 준 문제집들이 있고, 지하실에는 열마 전 사회체육관을 통해 후원 받은 탁구대와 운동기구가 있다. 불교계 기관이라고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스님과 불자들의 진심이 된 관심과 배려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알게 된다.

윤 국장은 “청소년은 복지과 인권의 사각지대로 소외계층 중에서도 유난히 소외받는다. 최소한의 옷이나 용돈을 넘겨주게 줄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하다. 결연, 단기 및 장기 등 여러 형태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영희네 집 아이들의 장래희망을 보면, 지도교사들과 같은 사회복지사나 상담가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받았던 배려와 사랑을 또 다른 이들에게 회향하려는 착한 마음씨에서 불성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영희네 집 10명의 천진불들을 다시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뿐이다. (051) 581-1388

박지원 기자

국민통합·경제회복 바라며

법연원, 백스코서 구구천도대재 성료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한 구구천도대재에 앞서 사부대중들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맨왼쪽이 조연 스님.

대한불교법연원(원주 조연)은 2월 2일 부산 백스코에서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한 구구천도대재를 봉행했다.

올해 6회째를 맞은 이번 구구천도대재는 지난 81일간 진행된 기도의 회향법회로 육법공양, 기도문 봉독, 시식, 헌령, 반야언, 조연 스님의 법어 등

의 순으로 2시간 여 이어졌다. 행사에는 조연 스님을 비롯해 정각 스님(미륵사 회주·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 설동근 부산시교육장(부산불교신도연합회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지원 기자

청년불자들에게 장학금전달

BTN 염불공양회, 창립 15주년 정기총회 등 봉행

불교TV 염불공양회(회장 하정선)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청년불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염불공양회는 2월 2일 부산 중앙빌딩 사무실에서 정기총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염불공양회의 장학금은 경희대 의학과 석사과정 김지연 학생 등 14명에게 총 800만원이 전달됐다.

하정선 회장은 “부처님 정법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창립된 염불공양회가 벌써 15주년을 맞아 감격무량하다. 그동안 많은 활동들을 통해 불교를 알리고 불교인재를 육성하는데 큰

힘을 기울여 온 것이 큰 보람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여생을 회향하고 싶다”고 말했다.

1995년 염불을 통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창립된 염불공양회는 현재까지 2000여 회에 걸쳐 염불공양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 부산대병원 법당에 정기적으로 불서를 범보시하는 등 꾸준한 염불공양 외에도 다양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염불공양회는 2009년 조계종으로 부터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지원 기자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변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순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 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침권의 역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리게 된다.

수월 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 할 안녕과 변영의 수호신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며,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이나 잘 응할 수 있다.」(관세음보살공명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세상은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변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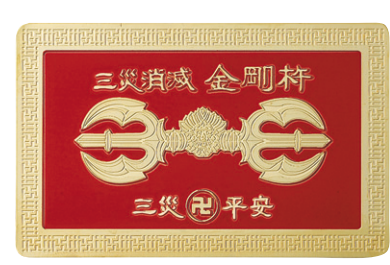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변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를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집안식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金成浩화백에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집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변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년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원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능)

2010년 드는 삼재시작 용띠, 쥐띠, 원숭이띠, 조심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묶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재하는 마음으로도 조심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돼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 통받고, 삼재관제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자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운

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 1의 법구인 금강저를 물에젓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재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 무탈하고 승리하게 집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급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할 공금가격 별도 상담요)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사랑 또는 중경상으로 인한남이 없는 오늘날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툴팁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할스님 30%할인)